나주시 단체복 입찰 취소에 참여업체 반발

"견본품 제작·서류 준비 등 돈·시간·인력 손해" 행정소송 방침

특정업체 밀어주기 주장도…시 "요건 보완 다시 입찰공고할 것"

나주시가 직원들의 단체복 구매 입찰<광주일보 21일자 11면 보도>을 갑자기 취소해 참여했던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직원 상의점퍼(사계절용 점퍼 내·외피 세트. 28만원) 1714벌 약 4억8000만원 상당에 단체복 구매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고 밝혔다.

입찰 취소 이유로 "구매가격이 너무 높아 자칫 시민들에게 고가 단체복 구매 논란이 일까 염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는 지난 19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복 견본 제품 선호도 투표를 마무리하고 지난 2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제안설명회 및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기업 브랜드를 입찰에 참여시켜 중소기업제품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중소기업 중앙회의 지적을 받자 입찰 품평회 진행을 중단했다.

이번 입찰 품평회에 참여한 6곳 중소기업 중 대기업 브랜드를 가지고 참여한 업체는 4곳에 이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 서류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시의 갑작스런 입찰 취소에 견본품 제작과 서류 준비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참여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1차 입찰공고에 '브랜드 확약서'항목이 있어서 항의하자 삭제하고 2차 정정 입찰공고를 냈다"며 "시에서 대기업이나 타사 상표부착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기업 브랜드를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은 "가격을 본인들이 정하고 본인들이 비싸다는 평가를 내려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대기업 브랜드만 제외하고 품평회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다가 실패하자 입찰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A사 관계자는 "중요한 행사도 없는데 '긴급 입찰공고'를 낸 것과 '조기납품 조건', '브랜드 확약서'로 대기업제품 참여 등 1차 공고부터 이상했다"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피해보상을 받고 또 다시 이런 일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 관계자는 "입찰 가격이 높은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 입찰 취소를 했다"며 "가격을 조정하고 요건 등을 보완해 다시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도 직원 단체복 입찰공고에 '브랜드 사용 확약서'조항과 '브랜드 평점'조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위배된다는 중소기업들의 항으로 지난 5일과 21일 두 번에 걸쳐 문제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24일 3차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지자체들에 관련 법률 숙지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모樂모樂' '들樂날樂' 등 21개 지역공동체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협약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21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대상들과 사업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

나주시는 지난 21일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요령 및 회계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 마을 활력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올해 '모樂모樂-모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들樂날樂-민간거점 공유 공간' 등 2개 분야 21개 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약속했다.

또 센터는 사업대상자들의 원활한 공모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개 사업대상자는 오는 12월까지 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후 '공익한마당'을 통해 활동 및 결과 공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협약식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

가격 폭락 양파 재배농가 돕기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 2만5000망 판매 목표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

나주 지역 농민들이 풍작을 이룬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와 연계해 양파(20kg) 2만5000망 판매를 목표로 시청과 주요 관공서, 공공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사랑의 양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주 지역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176ha로 지난해와 큰 변동은 없으나 생육 환경이 좋아 생산량이 10ha당 약 6772kg로 평년대비 12%가량이 증가했다.

올해 양파가격은 생산량 급증으로 40~45%정도 인하되면서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시는 양파 수급 안정 및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시청 본청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에게 1915망을 판매했다.

특히 다시면은 재경향우회 등과 연계한 양파 사주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서울 종로구청과 동대문구청에 양파 500망과 600망을 각각 판매하는 등 이번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지폐기, 판로확보, 양파 사주기 운동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농가들의 고민을 해소해가겠다"며 "이번 양파 사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나주 이상저온 농작물 …복구비용 48억 확정

피해 면적 1825ha 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주시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용으로 48억을 확정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나주지역 농가에 발생했던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 농작물 재해 복구비용을 48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 면적은 약 1825ha(배 1729.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기타 과수 35.9ha, 담배 2.5ha)로 조사됐다.

재해복구비는 총 48억원(국비 34억, 도비 7억, 시비 7억)으로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대상 생계지원비, 농약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6개월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시는 국비가 배정되면 2회 추경 등을 통해 시비를 확보해 농가에 복구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는 경미한 피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농가(3.7ha)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이상저온으로 지역 농작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한땀 봉사회' 기능인 양성 수료식…재능기부 본격 추진

나주시는 천연염색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전문자원봉사단체인 '한땀 봉사회'가 최근 기능인 양성교육 수료식을 갖고 재능기부를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20명으로 구성된 한땀 봉사회는 건강에 이로운 천연염색 의류, 베갯잇, 방한조끼, 인견바지 등을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김성미 한땀 봉사회 회장은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재능기부의 보람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준 나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우쿨렐레, 네일아트 분야 전문자원봉사자를 신규 양성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선정

나주시, 소외계층 위해 주거신축비 5000만원 확보

나주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신축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전남도, 경북도 간 나눔 문화 실천에 따른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빈곤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 오케스트라 협연 및 교류탐방 캠프, 주택지원 등을 협력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힘입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천사보금자리 주거개선사업'을 7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 모군은 할머니와 3형제로 구성된 조손가정이다. 오래되고 비좁은 하우스 내부 주택용 임대컨테이너에서 수년 째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할머니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등 조손가정의 행복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행정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